

## 가정 순모임: 신자의 삶에 낙심은 없다

### Family small group: Never Lose Your Heart

고린도후서 4:16-18 / 2Corinthians 4:16-18

코로나바이러스로 세상 사람들이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런 상황 앞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낙심할 만한 상황은 곡선 같은 인생길에 언제나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걸모습, 현실에 부딪히는 환난, 생각대로 펼쳐지지 않는 현실, 이런 상황 앞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낙심을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 자녀의 영광스런 모습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을 세 가지로 보여줍니다.

- 16절, 우리의 걸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걸사람이 낡아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걸사람이 낡아진다는 것을 발견할 때는 언제이고 그때 어떤 심정인가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나의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바울은 왜 우리가 받는 환난이 잠시요 가볍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베푸실 영광의 날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 고난을 극복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자에게 다가오는 환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살아가면서 눈 앞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눈 앞에 보이는 것을 우선적으로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집중했던 경험과 보이는 것에 주목하며 살았던 경험을 나누어 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 낙심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이유를 보았습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라, 주님이 약속한 영원한 영광에 집중하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 순모임 가운데 누구나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련의 시간을 이겨내고 영적인 비상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 주일 설교 중에서 강조한 말씀

- 불신은 하나님을 몰라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낙심은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할 때 일어나는 심리적 현상이다.
- 문제를 목상하지 말고, 예수님을 목상하라. 세상 돌아가는 것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되라.